



신한은행, 남산초등학교에 '산한마음우산' 기부

신한은행은 지난 6일 한국어린이재단과 함께 서울 남산초등학교에서 '산한마음우산' 기부식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산한마음우산 이벤트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어린이들의 시야가 좁아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에 착안했다. 신한은행 안준식 부행장(가운데)과 한국어린이재단 안전재단 정영균 사무총장(오른쪽에서 첫번째)이 서울남산초등학교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중진공·인천공항공사, 中企벤처 물류단지 공동 추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회의실에서 '중소, 스타트업,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진출 판로 개척을 위한 인천공항 제2공항 물류단지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 4번째부터)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기보-이노비즈協, ESG 경영 활성화 맞손

기술보증기금과 이노비즈협회가 손잡고 이노비즈기업들의 ESG 경영 지원에 나선다. 양측은 지난 7일 부산광역시 문현동 기보 본사에서 '이노비즈기업 ESG 경영 도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정윤모 기보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SK렌터카, 2021 국가서비스대상 수상

SK렌터카는 '2021 국가서비스대상' 렌터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SK렌터카는 렌터카 업계에 고객 트렌드를 반영한 최초와 최고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 업계 선도하고 고객 가치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게 됐다. /SK렌터카



메쉬코리아 '부릉', 대한민국환경대상 본상 수상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바이크를 전격 도입한 '부릉'이 친환경 경 물류 서비스를 인정받았다. 정보기술(IT) 기반 종합 유통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는 지난 7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6회 2021 대한민국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산업-물류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메쉬코리아

'가성비+가심비' 샴페인 안부러운 스파클링



"봐라. 어떻게 거품들을 삼켜내는 지. 어떻게 반짝거리고, 빛에 어른거리며 통통 튀어내는지. 그것을 허위에 잠시만 머무르게 해도 당신은 이것이 정말 특별한 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중세 프랑스 시인인 장 보텔이 한 여관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맛보고 말한 시음평이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입안에서 주는 감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늑늑한 한여름 더위에 떠오르는 와인은 그저 차갑게 반짝이는 스파클링 와인. 레드와인과 비교하면 빈티지도 없고, 스타일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정작 한 병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다.

스�파클링 와인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샴페인은 사실 까다로운 조건만큼 가격이 비싸다. 반면 프랑스의 샴파뉴(샴페인)가 아닐 뿐 샴페인 양조 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가성비와 가심비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

'까델 보스코 퀴베 프레스티지'는



까델 보스코 퀴베 프레스티지, 몬테스 스파클링 앤젤 NV, 슈랩스버그 블랑 드 블랑, 카스텔블랑 D.O. 까바 브뤼 리제르바, /나라셀라

이탈리아의 샴파뉴라고 불리는 프란치아코르타에서 생산된다. 샴파뉴 지역에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총칭하듯이 이 지역에서 생산된 스파클링 와인은 프란치아코르타라고 부른다.

효모와 함께 병에서 28개월을 숙성해 고소한 토스트 향과 함께 배, 사과 등의 향이 코를 즐겁게 한다. 입안 가득 부드럽게 감싸는 섬세한 기포와 여운부의 바닐라와 버터의 흥취가 좋은 산도와 함께 어우러져 우아한 스타일을 선보인다.

'몬테스 스파클링 앤젤 NV'는 태평양에서 약 7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자파야비야드에서 만들었다. 화강암을 기반으로 한 점질적 양도는 품종 고유의 아로마와 훌륭한 밸런스, 그리고 강건한 골격까지 선사했다. 전통적인 샴페인 양조 방식으로 만들었

을 뿐 아니라 최고의 빈티지 샴페인에 버금가는 36개월의 효모 접촉을 거쳤다. 덕분에 섬세하고 힘있는 버블과 입안에서의 복합적이고 화사한 느낌, 프리미엄 샴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호두, 말린 과일, 비스킷 등의 풍미를 모두 가졌다. 가벼운 핑거푸드는 물론 해산물과 파스타, 치즈, 가금류 등과 두루 잘 어울린다.

'슈랩스버그 블랑 드 블랑'은 미국에서 전통적 샴페인 제조방식으로 만든 최초의 와인이다. 사도네이만을 100% 이용해 양조하고, 병 속에서 효모와 함께 2년간 숙성한다. 살구, 레몬, 흰 복숭아 등의 밝고 상큼한 과실의 풍미와 함께 갓 구운 빵의 풍미도 느껴진다. 식전에 단독으로 즐기기에 좋으며, 레몬 치킨이나 태국 커리와도 어울린다.

스페인에서는 샴페인처럼 병에서

2차 발효를 하는 전통방식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을 '까바'라고 부른다. '카스텔블랑 D.O. 까바 브뤼 리제르바'는 산뜻하고 미세한 버블이 계속해서 피어오르며, 잘 숙성된 효모의 아로마는 그랑 크뤼 샴페인에서 느낄 수 있는 아몬드, 브리오슈, 구운 빵을 연상시킨다. 바비큐 치킨과 토마토 베이스의 이태리 요리와도 먹기 좋다.

20세기 경제학계의 거장 존 케인은 죽기 직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인생에서 단 한 가지 후회 되는 것은 샴페인을 더 마시지 못한 일이다." 일단 오늘 밤 스파클링 와인을 딸 핑거거리는 확보했다.

/mahn1@metroseoul.co.kr



대한항공 '글로벌 고객만족도' 17년 연속 1위

코로나 속 차별화 서비스 인정 티웨이 LCC 부문 7년 연속 1위

대한항공이 17년 연속 글로벌 고객만족도 1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항공은 한국글로벌경영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글로벌고객만족도 평가'에서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부문 1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글로벌경영협회는 매년 고객의 품질 만족도, 글로벌 역량 및 고객 충성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 서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코로나 백신을 하기와 있는 모습.

비스를 제고한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방역프로그램인 '케어 퍼스트'를 통해 기내 소독, 탑승객 발열 체크, 승객 간 거리두기 등의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승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석 후방 좌석부터 순서대로 탑승하는 '존보딩'을 실시하고 있고, 승객과 직원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다.

대한항공은 5월 세계적인 항공사 평가-컨설팅 기관인 스카이트랙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6월에는 항공 전문지 '에어 트랜스포트 월드'에서 올해의 항공사로도 선정됐다.

이승범 대한항공 고객서비스부 부사장은 "글로벌고객만족도 17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 기쁘다"며 "이는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모든 직원들 덕분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은 글로벌고객만족도 평가 LCC(저비용항공사) 부문에서 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키르기스스탄, 베트남 등 전세계 운항을 통해 재외국민 수송을 지원하고, 올해 2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인 '티펫'을 시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내년 초 중대형 항공기 A330을 도입해 크로아티아, 호주, 키르기스스탄 등 중장거리 노선에 신규 취항할 계획이다.

/양성문 기자 ysw@

페립스틱으로 만든 크레용 제작·기부

신세계인터내셔널 지역 아동센터 소외계층에 나눔

신세계인터내셔널은 지난 7일 오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내 취약 아동들에게 페립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크레용 375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활동은 신세계인터내셔널이 2012년부터 진행해온 사회공헌활동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통기한이 임박한 자사 브랜드 립스틱

3820개를 모아 크레용으로 업사이클링해 소외계층을 향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소각 폐기를 앞두고 있던 정상가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립스틱이 재활용돼 주황, 빨강, 자주 등 붉은 계열의 크레용 375세트(5개입)로 제작됐다. 페립스틱 2개당 크레용 1개를 만들 수 있어 환경보호는 물론, 저소득층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립스틱 크레용 세트는 초록우산



신세계인터내셔널이 자사 브랜드의 립스틱을 업사이클링해 크레용으로 제작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어린이재단을 통해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강남드림빌 등 서울 내 지역아동센터 4곳에 보내졌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인사

- ◆ (주)엔씨원 △ 대표이사 김석진
- ◆ 전북 부안군 ◇ 4급 승진 △ 행정복지국 김창조

부음

▲ 최영섭(예비역 해군 대령)씨 별세, 최재신·재형(전감사원장)·재민·재완씨 부친상, 여명하·이소연·안숙하·이정은씨 시부상, 최중호·지원·정원·승호·예원·정호·윤호·영진·진호씨 조부상 = 8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0일 오전 9시,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2-2227-7500.